

공론장과 ‘마이너리티 리포트’

-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 -

이선미*

1. 정비석 신문소설과 ‘공론장’
2. 정비석 신문소설의 서사: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담론장
- 『자유부인』(1954)에서 『비정의 곡』(1959)까지
3. 무대공연과 신문소설: 신문소설의 시공간성과 정체성의 구조
4. 결론

국문요약

정비석은 신문소설을 통해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대중적 담론장의 중심에 서게 되고, 작가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한다. 중앙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자유부인』에서부터 반정부적 대응으로 폐간될 시기의 『경향신문』에 연재하다가 중단된 『비정의 곡』에 이르기까지 정비석의 신문소설은 동시대에 발표된 잡지매체의 소설들과 구별될 정도로 신문이라는 매체의 사회비판적 성격에 맞추어서 세태비판적인 담론을 구성한다. 전작 장편소설들이 의도하는 전체적인 서사적 흐름을 고려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세태반영과 비판의 서사를 단막극의 형식으로 이어가는 구성이 압도적이다. 신문소설이 신문이라는 무대와 독자라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가는 시공간적 구조의 ‘무대공연’과 같다고 인식했던 정비석은 다양한 인물의 상황 속에서 인물을 주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첨단적인 현실을 신문 사회면과 보조를 맞추어 미시사적 사실로서 재현한다. 당대적인 첨단의 현실을 인물의 내적 상황으로 그려내고 있기에, 다양한 삶의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날 것 그대로 폭로되는 갈등의 장을 형성한 것이다. 신문의 독자들은 사회면 기사를 보며 세태를 파악하고, 정비석 신문소설을 보며 그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 연구교수

세태를 양산하는 욕망의 기원을 탐색하고 논의한다. 이렇듯 새로운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합하고 있는 다양한 독자(대중)들은 신문소설을 매개로 상상적 담론장을 구성한다. 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당대적 문화사의 맥락에서 재구되는 정비석 신문소설의 의미실현 구조는 이 ‘공론장’의 성격 속에서 해명될 수 있다.

정비석은 스스로 여러 지면에서 ‘민주주의론’을 언급한 바 있지만, 소설에서 언급된 민주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오해하는 흔적으로 평가될 만한 것이다. 정비석 소설을 놓고 타진하는 민주주의는 정비석 스스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소설의 구조, 즉 소설의 다원적 담론구조로 독자들이 모여들게 하는 공론장적 성격을 민주주의적 소통의 사회적 형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정비석 신문소설의 의미는 1950년대 신문 매체의 사회사적 구조 속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1950년대 신문이라는 무대와 독자라는 조건이 어우러질 때만이 가능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무대가 없이는 정비석 신문소설이 이런 서사를 구성하지 못한다. 결국 1950년대 신문의 사회적 성격이 변하자 정비석 신문소설은 더 이상 1950년대 신문소설과 같은 ‘공론장’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리고 정비석도 1950년대 신문소설이 구현한 사회사적 성과를 기억하지 못한다. 게다가 1960년 4.19로 표출된 대중의 꿈과 욕망의 다차원적 의미가 5.16을 통해 경제제일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면서, 정비석 소설의 공론장적 구조 속에서부터 표출된 대중의 일상과 욕망은 경제주의에 장악되어간다. 신문소설을 공론장이 되게할 정도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자본주의적 삶의 문제들은 단일한 주제를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다양한 주체의 담론은 ‘마이내리티 리포트’로 억압되고, 사라져간다. 1950년대 문화적 활기와 정치를 비판하는 ‘사회’의 형성은 바로 이 신문소설의 공론장적 구조에서부터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정비석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는 1950년대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공론장, 마이내리티 리포트, 정비석, 신문소설, 담론장, 민주주의, 독자, 소통, 성, 젠더, 사건적 서술방식, 사회비평, 회화화)

1. 정비석 신문소설과 ‘공론장’

정비석은 「성황당」의 작가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성황당」의 작가라는 평가는 1960년대 이후 문학사적인 평가 속에서 호명된 ‘정비석’에 가깝다. 실제로 소설을 쓰는 동안 정비석을 소설가로서 정체화시킨 작품은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했던 신문소설 『자유부인』이다. 전후 황폐한 서울에서 『자유부인』은 매번 상업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기록을 세워 모든 분야에서 주목을 받는다. 『서울신문』의 판매고를 올려 신문소설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례적인 단행본 판매부수를 기록하여 ‘베스트 셀러’를 향해 출판시장이 달아오르게 만들며, 외화로만 영화의 수익성을 생각하던 시기에 국산영화도 흥행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영화산업에 불을 지핀다. 『자유부인』은 1950년대 중반 문학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사 전반에 걸쳐 화제가 되었던 소설이다.

『자유부인』의 사회적 파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법학과 교수인 황산덕이 교수를 비난하는 소설이라고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일대 논전을 일으킨 사건으로도 유명하다. 정비석이 답변 형식의 반박문을 쓰고 황산덕 교수가 재반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하자, 당대 권위적인 문학평론가로 인식되던 백철을 통해 수습하듯이 정리된 논쟁이다.¹⁾ 이 논쟁을 거치면서 『자유부인』은 신문소설의 사회성과 통속성을 논의하는 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의제를 제기한 셈이 되었다.²⁾

1) 황산덕과 정비석의 논의는 손세일 편, 『한국논쟁사2-문학·어학편』, 청람문화사, 1976 참조, 백철의 논의는 자유부인 논의의 논점을 흐리고, 적당히 무마하는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정비석은 『자유부인』을 쓰고 나서 “적어도 대한천지에서는 글자나 배운 사람치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치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명해졌으며, 이것을 “말썽”이 많은 소설로 평가한다. 즉 정비석은 『자유부인』을 쓰면서 여러 번의 필화 사건을 겪고, 여러 단체의 비판을 받으며, 수많은 독자들의 편지에 시달렸다고 한다. 물론 격려의 편지도 많았지만, 무수한 논란거리를 제공하였기에, “말썽”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할 정도이다. 당대 “풍속을 현실 그대로 그렸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놓고 논의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매개로 논의하는 토대가 되었다. 정비석은 이런 점을 “말썽”으로 표현하였으며, 이 논문에서는 “공론장” 개념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정비석, 『『자유부인』의 생활과 그 의견 - 정비석이 유명하나

어찌되었건 『자유부인』은 한 편의 소설이 허구적 상상물이라는 문학적 소통의 방식을 넘어서서 사회적 관념이나 풍속, 문화에 개입하여 기존의 관념들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담론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성격을 부여받을 만하다.³⁾

그러나 독자와 소통하는 정비석 소설의 대중적 영향력에 비해 이와 관련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된 적은 거의 없는 듯하다. “순문학적 관점”이 우세한 문학사적 평가에서는 『성황당』 만으로 살아남았으며, 이후 각종 문학전집에서도 정비석은 『성황당』 이외에 별달리 언급되지 않는다. 또 『자유부인』에 대한 기존 연구도 정비석을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담론 생산자로서 취급하지는 않는다.⁴⁾ 주로 텍스트의 서사분석을 통해 작품을 논의하는 방식의 연구는 정비석 소설이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수용된 사정을 밝히기는 어렵다.⁵⁾

『자유부인』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유부인』은 당대 대중문

『자유부인』이 유명하냐, 『신태양』, 1957.1, 98쪽

- 3) 요시미 순야가 현대사회 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미디어 횡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시미 순야, 『미디어 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참조.
- 4) 이봉범은 『자유부인』을 문학 텍스트로만 해석하지 않고 풍속사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자유부인』을 다양한 풍속사적 사건들과 문화를 상징하는 텍스트로 설명한 바 있다. “일반대중들 간의 대 논전이 벌어짐으로써”, “전후 풍속의 여러 요소가 공론화 되고 이에 상응해 풍속 내지 풍기담론이 촉발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이 공론화 양상이 『자유부인』을 넘어 1950년대 신문소설 전체에 걸친 특성으로 해명하고자 한다.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집, 2011.2, 337쪽 참조.
- 5) 정비석 소설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유부인』에 집중되어 있으며, 텍스트의 분열적인 현실인식을 지적하고 있으나, 가부장적 가정윤리의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서사적 지향이 너무 강력하여 별달리 평가하지 못한다. 최미진과 김은하는 각각 『여성전선』(1952)과 『유혹의 강』(1958)을 서로 이질적인 여성 인식이 작용하는 균열적인 텍스트로 평가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작품의 서사적 주제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재구축을 향하고 있어 공론적 성격을 부분적으로 지적할 뿐이다. 강진호, 『전후 세태소설의 존재방식』,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사, 2004,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5권1호, 2004,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소설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 문학이론연구』 32집, 2007.12,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와 위협한 미방인의 문화정치학 -정비석의 『유혹의 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2010.12 참조.

화를 뒤흔들어놓을 만큼 충돌의 과정 속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되었다. 단지 성적인 묘사를 흥미 위주로 감각하기 위해 수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사회적 여파가 너무 크다. 이 충돌의 과정이 있기에 전면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화제를 일으키며, 담론을 만들면서 수용되었다고 보인다.⁶⁾ 그리고 이 충돌의 과정이 정비석 신문소설의 핵심이며, 정비석이 대중문화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이었던 듯하다. 이 글은 정비석 소설의 문학사적 가치를 이 지점에서부터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텍스트 자체의 연구를 넘어서서, 텍스트가 놓여지는 담론 공간의 상호적인 ‘관계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즉 텍스트와 독자가 같이 구성하는 이야기의 담론화 과정을 전제로 했을 때를 문제삼는다. 텍스트를 넘어서서 당대 상식적인 관습이나 문화, 혹은 관념과 갈등/충돌하는 관념의 존재양상을 통해 구성되는 ‘공론장’으로서 ‘소설’을 전제하는 것이다.⁷⁾

따라서 소설가 정비석이 창작한 서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언어적으로 명

- 6) 정비석의 소설은 1952년 『여성전선』부터 독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듯하다. 『자유부인』을 기점으로 논쟁이 반박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독자들의 편지나 투고문도 훨씬 많아진다. 정비석, 『『자유부인』의 생활과 그 의견 - 정비석이 유명하나 『자유부인』이 유명하나, 『신대양』, 1957.1 참조.
- 7) ‘공론장’은 부르조아 계급의 사회적 출현과 더불어 논의된 공론장, 공공영역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이다. 부르조아 계급의 출현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면서 정치, 혹은 정치권력과 대응하는 관계인 ‘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장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에서 연유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생적 제도로서 공동의 광장으로 역할하며, 사회적인 자기를 이해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공론장’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공개적이며,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담론의 광장이라는 소박한 의미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론장 개념을 이론화한 하버마스는 “부르조아 공론장은 우선 공동으로 결합한 사적 개인들의 영역으로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사적인 것으로 되었지만 공적으로 중요한 상품교환과 사회적 노동의 영역에서 교류의 일반규칙에 관한 공권력과 대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하버마스는 공론장이 사적인 개인들이 모여서 공권력에 대응하여 공적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고자 다양한 담론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공적 논의로 파악한 것이다.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95-99쪽 참조) 한국에서도 최근에 공론장, 공공영역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여건중, 『공공영역의 수사학』, 『안과 밖』2호, 1997,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한국문화연구』38집, 2010 상반기, 윤상길,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매일신보>』, 『한국언론학보』55권2호, 2011.4 참조.

시화되어 있지 않은 독서 과정에서 독자가 비집고 들어가서 의미를 형성하게 하는 무수한 서사적 틈새는 서사로 명시된 이야기 만큼이나 의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서사적 틈새에서 독자는 서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전유하고 재맥락화한다.

소설가 정비석은 자신이 소설을 게재하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그 매체의 독자를 상정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소설가의 역할을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매체의 성격에 따라 자신 스스로 생각을 변화시켜나가기도 한다. 특히 정비석은 신문소설에 연재하는 동안 신문의 담론을 자신의 것인양 수용하고 스스로 현실인식을 심화시켜간다. 이 상호적인 과정이 신문소설의 의미가 구성되는 장소이다. 이를 위해 텍스트의 서사와 이것이 수용되는 문맥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연애와 애욕의 이야기는 정비석 소설의 중심 서사이다.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신문소설의 경우에도 연애와 애욕은 가장 중요한 서사의 축이다. 그러나 연애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식이기보다 여성을 연애의 주체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원리들이 공공연하게 논의되게 하는 매개물인 경우가 많다. 즉 여성의 애욕은 그 자체로 금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원리와 연관되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는 여성의 연애와 성욕을 공적으로 논의하지도 않았던 시기여서, 연애와 성이 소설의 소재가 된다는 것 그 자체로 논란거리였다. 게다가 정비석은 여성도 연애와 성욕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연애와 성을 다룬다. 물론 서사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성을 가정 안으로 통제하고 제한함으로써 가정 밖의 여성의 성을 처벌하는 가부장적 상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허용하는 수준에서지만, 여성을 육체적 존재, 성욕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당대 부덕(婦德)의 논리와 가장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을 반박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교수 부인들이 지닌 부덕(婦德)을 모욕한다는 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⁸⁾ 이 텍스트를 놓고 벌어진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8)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1954.3.1 참조.

1950년대 지배담론의 하나로 기능했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실천요강이라 할 수 있는 부덕의 논리는 집박으로 외출하면서, 혹은 밤거리를 거닐면서 세계일주를 하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는 여성들을 통제하는데 활용된다.¹⁰⁾ 따라서 『자유부인』에서 오선영이 외출을 하고 직업을 갖게되면서 사회적 자아를 생각하는 과정은 이 부덕의 논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의미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망인을 부덕의 논리로 통제하려는 지배담론에 맞서서 육체의 주체로서 재현하고, 성욕의 주체로서 재현하는 『유혹의 강』의 서사 역시 교수부인 오선영을 부덕을 부정하는 사회적 주체로 재현하는 것과 상통한다. 당연히 지배담론의 통제 시스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적 위상이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비석 신문소설의 ‘공론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곧 전체적인 서사에 대한 평가로 환원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비석 신문소설의 문법이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 것이다. 정비석의 신문소설은 ‘소설’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정비석은 1955년 『한국일보』에 『민주어족』 연재를 마친후, “이제 연재소설에 대한 신문독자들의 호흡이라는 것을 어느정도로는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¹⁾고 말한다. “순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독자의 호흡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문학의 타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으나 소설이란 우선 읽혀야 하는 것이오 또는 발표무대가 한토막 한토막씩 분재되는 신문지면임을 생각할 때” 독자의 호흡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신문소설을 구별한다. 정비석 스스로 파악하는 ‘독자의 호흡’은 신문소설이 독자와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장르라는 인식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비석은 신문소설을 독자의 존재를 끌어들이며 구성하는 서사로

9) 그러나 이것은 정비석의 의도라기보다는 정비석 소설의 효과이다. 정비석은 오선영을 비아냥거리고 비판함으로써 도덕을 바로세우기 위해 오선영을 그렸기 때문에 황산덕의 비판을 알아듣지 못한다. 정비석 소설의 사회적 효과는 정비석 소설의 의도나 정비석의 현실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 정비석은 여러 글에서 황산덕 교수와 같은 생각을 피력한 바 있다. 정비석은 소설에서 여성의 성을 다룰 때, 그 소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별달리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 정비석 앞의 글 참조.

10) 오선영의 외출과 밤거리 산책에 대한 서술부분 참조.

11) 정비석, 『민주어족을 쓰고나서』, 『한국일보』, 1955.8.9, 4면.

인식했던 것이다. 정비석의 신문소설론과 결부시킬 때, 정비석 신문소설은 텍스트가 수용되는 문화사적 양상 속에서 재맥락화되어 의미를 실현하는 시공간적 구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정비석 신문소설의 서사: 사회적 갈등과 충돌의 담론장

- 『자유부인』(1954)에서 『비정의 곡』(1959)까지

정비석은 줄곧 신문에 소설을 연재하는 방식으로 장편소설을 쓴 작가이다. 주로 신문소설의 형식으로 장편소설을 쓴 작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해방 후부터 1950년대에 걸치는 십 여년 동안은 신문기사처럼 당대의 사건들을 소재로 한 소설이 주를 이룬다. 소설의 배경도 새롭게 형성되는 도시적 생활방식이 드러날 수 있는 도시인들의 활동 공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¹²⁾ 해방 후 바로 발표한 장편소설 『고원』 이후로 쉬지 않고 장편소설을 쓰게 되는데, 도시적 생활방식을 남녀의 연애서사로 재현하는 소설은 1946년 『신인』에 연재하여 1947년 평범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한 『도회의 정열』을 처음으로 꼽을 수 있다. 이후 1947년 『중앙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하는 『장미의 계절』부터는 신문연재의 형식으로 당대적 삶의 양상을 연애서사로 재현한다.

신문소설의 형식을 취하면서 도시적 생활방식과 그 생활 주체들의 연애 스타일을 다루는 연애서사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2년 피난지 대구에서 발행된 『영남일보』에 연재된 『여성전선』(1952)과 『세기의 종』(1953)에서 본격화된다. 이 소설들은 『도회의 정열』부터 시작되는 도시적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젊은 남녀들의 연애와 문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연애와 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볼거리’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연애서사로 집중되어 있기에 연애와 성이라는 소재 이외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았

12) 『슬픈목가』는 농촌계몽운동을 이상화하는 소설이다. 그러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농촌으로 내려가는 계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에, 반 이상이 도시생활을 배경으로 한다.

다고 할 점은 별로 없다. 단지 『여성전선』의 경우, 새로운 연애의 주체로 등장한 여성 캐릭터로 인해 다양한 담론의 발미를 제공한 점에서 대중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할 것이다.¹³⁾ 다소곳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자유로우면서 분별력있는 여성인물이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애의 주체로 등장한다. 이는 연애를 여성이 주도하면서도 순정화하지 않고 욕망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가히 전복적인 측면을 지닌 여성 캐릭터의 창출이었다.¹⁴⁾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연애문제로 서사화함으로써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정비석 소설의 성격은 이미 『여성전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연애서사는 사회적인 현안을 담론화하는 방식의 공론장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기존의 관습과 문화를 조율하는 윤리의식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재현함으로써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제를 생산하는 장으로서 신문소설이 역할하는 양상은 『자유부인』에서 본격화된다.

『자유부인』은 연애소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선영을 중심으로 한 ‘부인’들의 문화로서 댄스나 계, 양품점 같은 사회활동 등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장태연을 중심으로 1950년대 한글 대중화 문제, 교수사회, 그리고 정치분야로서 국회의원의 부패상, 경제분야로서 거간꾼에 해당하는 브로커들의 부정과 비리, 협잡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매체를 구분하면서 독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소설을 썼던 정비석은 중앙 일간지에 등장하면서 신문소설의 감각을 새롭게 갱신한 셈이 되었다. 그리고 신문에서 다루는 당대 사회의 문제들과 같은 맥락에서 소설의 콘텐츠를 구성했던 정비석의 감각은 적중했다. 『자유부인』은 사상 최대의 흥행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전에 연애서사를 중심으로 신문소설을 썼던 것을 생각해보면, 연애서사 만으로는 이런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유부인』은 전체적으로 집을 나가 댄스바람에 휩쓸려 일탈에 이르는 가정주부를 처벌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개를 취한다. 그러나 소설

13) 서광운,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311쪽.

14)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소설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 문학이론연구』32집, 2007.12 참조.

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각 장을 구성하는 이야기들은 사회비평적 논평들을 통한 자극적인 ‘폭로전’을 방불케한다. 소설은 신문에 연재되는 토막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이 나열되어 매 사건마다 독자들에게 사회의 실상을 알려주며, 무수한 메타 담론이 벌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¹⁵⁾ 소설의 서술자는 이야기를 이끌어간다고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던지는 발제자의 역할로도 보인다.

『자유부인』은 연애와 성이라는 소재를 당대 풍속과 경합하는 갈등적 문화풍속으로 구성해냄으로써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들이 윤리적 가치의 대결인듯이 부딪히는 실상을 보여준다. 신문기사와 같은 실시간의 정보들과 더불어 인물의 내면을 집중화시키는 방식은 각각의 갈등적 상황에서 인물의 진정성이 ‘새로움’의 실체로 드러나게 만든다. ‘오선영의 자유’를 비아냥거리는 가부장적 해석자가 전체 서사를 주관하고 있기에 서술자의 가부장적 관점이 전면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선영의 내면심리에서 오선영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기에, 근대적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선영의 윤리감각 역시 새로운 흐름으로 수용되는 맥락이 있다.¹⁶⁾ 단편적인 기사성 일화들과 사실적인 내면묘사는 신문소설의 형식으로 소설의 다원적 의미구조를 만들어낸다. 나날이 연재되는 이야기가 각각의 사건처럼 인물들의 현실을 쟁점화시키는 구조는 『자유부인』이 다양한 주체성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게 하는 요인이다. 이런 서술방식과 서술자의 사회비평적 태도는 『자유부인』의 대중적 인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형식적 요소이다.

더불어 정비석의 소설이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것에 비해 통속성의 근간이 되는 숭고한 상징이 없다는 점도 주목할 특성이다.¹⁷⁾ 정비석 소설은 사회를 규율하는 기존관념을 부정하고 비트는 새로운 관념이나 현실상이 부

15) 정비석, 앞의 글, 임현영,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 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참조

16)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카니즘」, 『민족문화연구』54호, 2011.6, 78쪽 참조

17) 1930년대 통속소설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 - 김말봉의 『찔레꽃』 읽기』,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5를 참조할 것. 일반적으로 통속성이 숭고미와 연관되며, 젠더적 표상으로 비유되는 특성은 리타펠스키, 『근대성의 젠더』(자음과모음, 2010)의 5장 참조

각될 때, 그 장면이 빚어내는 해체의 통쾌미로 독자를 자극한다. 반면에, 승고한 정신을 고취하는 식의 소설은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을 사거나 부자연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컨대, 정비석이 자신의 명성을 확인하고 권위를 세우고자 야심차게 기획했던 『민주어족』이 독자 대중들에게는 별달리 평가받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¹⁸⁾

신문의 명성에 신문소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한국일보』는 창간 연재 작품을 잇는 소설가로 정비석을 선택한다.¹⁹⁾ 예상치 못한 『자유부인』의 성과에 기대어 정비석은 『한국일보』에 걸맞는 작품을 구상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장대한 포부를 안고 작품을 연재한다. 신문소설이면서도 신문소설의 독자를 좀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품을 썼다고 술회할 정도로 정비석 나름대로 『한국일보』에 걸맞는 신문소설을 쓰고자 실험한다.²⁰⁾

그러나 『민주어족』은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처음부터 너무 강하여 부자연스러운 면이 부각된다.²¹⁾ 『자유부인』은 기존의 도덕관념, 문화, 관습에 도전하는 새로운 현실을 덩어리로 던지는 방식으로 기존의 관념과 충돌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민주어족』은 대안적 이념이 강하게 드러나 다양한 주체들이 담론을 꺼내놓는 공론장적 역할보다는 계몽적 성격이 강하다. 작가가 당대 문학평론가의 평가는 정반대지만,²²⁾ 정비석의 신문소설적인 면모는 오히려 다음 작품인 『낭만열차』에서 훨씬 긍정적으로 발휘된다.

18) 『작가의 말-『민주어족』 예고문』, 『한국일보』, 1954.12.4, 『『민주어족』 독자평』, 『한국일보』, 1955.8.23 참조.

19) 『한국일보』를 창간한 장기영 사장은 신문소설의 중요성을 자각하고서 당시에 병상에 누워있던 염상섭을 직접 찾아가서 『미망인』 연재를 이끌어내며, 정비석의 『민주어족』 이후, 오랫동안 소설을 쓰지 않고 목포의 고향에 칩거하고 있던 박화성을 설득하여 연재를 받아내서 『고개를 넘으면』을 연재한다.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29집, 2010 참조.

20) 정비석, 『『민주어족』을 쓰고나서』, 앞의 글 참조.

21) 『『민주어족』 독자평』, 『한국일보』, 1955.8.23 참조.

22) 광종원과 백철은 『민주어족』을 가장 잘된 장편소설로 평가한다. 광종원, 『신문소설의 공과』, 『동아일보』, 1958.5.28, 백철, 『문학소설의 만네리즘사-십년회고에 다시금 반성되는 5-』, 『경향신문』 1958.8.3 참조.

그렇지만 『민주어족』은 정비석이 신문소설을 어떻게 쓸것인가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기점이 되는 작품이다. 『자유부인』의 대중적 관심을 겪고나서 연재한 『한국일보』에서 정비석은 독자가 지식인 계층일거라고 계산하면서 소설을 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독자와의 호흡이 신문소설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알게되었다고 말한다. 『민주어족』을 계기로 독자와 같이 써내려가는 ‘소통’으로서 신문소설의 성격을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후에 쓴 소설이 『낭만열차』이다.

작가 스스로 한 3개월 아픈 와중에 쓴 소설이라서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고,²³⁾ 평론가들도 별달리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작가는 “잃어버렸던 꿈을 찾아 헤메는 사람의 이야기”²⁴⁾를 통해 인간본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했지만, 정작 소설은 단편적인 일화를 통해 세태를 풍성하게 보여준다. 신문기사를 쓰듯이 당대에 이슈가 된 사건들을 다루는 사건기술적 방식과 다양한 인물을 통해 삶의 전체적인 면을 사건으로 조망하는 방식이 소설을 읽는 재미였다고 평가한다.²⁵⁾ 정비석은 독자의 호흡을 알게되었다고 술회한 『민주어족』을 거치면서 신문소설의 문법을 어느정도 스스로 정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직후에 쓴 『낭만열차』에서 독자의 호흡을 맞추는 방식이 시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비석이 신문소설을 독특한 하나의 장르로서 파악한 흔적은 1955년 8월 8일 『민주어족』의 연재를 끝내고 1956년 4월 25일 『낭만열차』의 연재를 시작하기 전 6개월 동안 부산에서 발간되는 신문인 『국제신보』(1955.9.1~1956.3.5)에 연재한 『여성의 적』(연재시 제목은 『나비아 청산 가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연애가 새로운 삶을 매개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담론 공간으로서 신문소설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기 시작한 흔적이 역력하다.

『여성의 적』은 1955년 재판을 받으며 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이슈

23) 정비석, 『종착역에서』, 『한국일보』, 1956.11.24

24) 정비석, 『작가의 말』, 『한국일보』, 1956.4.21

25) 『낭만열차에서 내리고 - 독자들의 독후감』, 『한국일보』, 1956.12.2 참조

거리를 제공했던 박인수 사건을 의식한 소설이다.²⁶⁾ 박인수는 70여명의 여성과 결혼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갖고 기소되어 공무원 사칭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공무원 사칭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혼인빙자간음은 인정되지 않았다.²⁷⁾ 내가 만난 여자 중 처녀는 한 명이었다는 법정 진술로 화제가 되었고,²⁸⁾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라는 판결문은 ‘돈황’으로 인식된 박인수보다도 더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다. 정비석은 『여성의 적』에서 모든 여성을 애인처럼 생각하는 남성, 여성을 향한 성욕을 유일한 삶의 징표처럼 생각하는 남성을 내면적으로 파헤침으로써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남성심리를 다룬다. 박인수를 연상케하는 호색한 권동철의 삶의 방식과 자기 찾기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소설은 여성에게 정조가 절대적인 윤리이듯이, 남성에게도 ‘정조’는 가정을 지키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치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동철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서사와 상관없이 소설이 연재되는 과정에 따라 에피소드 식으로 나열되는 이야기는 새로운 여성인물과 연애 스타일, 그로 인해 구성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설 도입부에 빨간 수영복을 입고 한강에서 혼자 수영을 즐기는 여성인물 백설희의 연애관과 생활방식은 소설의 중심 서사이다. 도도할 정도로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사회적인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여성이며, 사회적 도덕의식에 구애받지 않고 연애의 주체인 남녀의 판단과 합의에 따라 연애한다.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면에서 아프레겔의 면모를 지니면서도, 철저한 자기관리와 애정관리로 사회적 관습보다도 연애 당사자의 친밀한 정서적 소통이 우선시되는 연애 스타일을 보여준다. 이 연애는 새로운 여성인물 백설희의 성격과 어우러져 새로운 연애, 새로

26) 당대의 연애와 성이 새로운 삶의 문제를 매개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던 소설가 정비석은 박인수 사건에 관심을 보인다. 『여원』에서 시도한 모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역할을 담당했었다.

27) 이상록, 『전쟁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정조관념’』,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148쪽 참조.

28) 『동아일보』에 게재된 기사는 “피고, 처녀는 단 하나였다고 진술”이라는 머릿글로 이 기사가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55.7.10

운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며, 백설희는 현대성이나 도덕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할 여지를 제공한다. 마침, 이 여성은 자신의 연인인 한승조와 계약 동거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연애의 결실인 ‘계약결혼’ 식의 파격적인 생활은 또다시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또 권동철이 만나던 여러 여성들 역시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권동철을 그에 걸맞는 방식으로만 관계하는 점도 당대의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는 충격적 가치관이다. 권동철의 명예와 돈이 탐났던 여성은 자신의 정조를 그것과 바꾸고, 권동철의 육체적 욕망에 현혹되었던 여성은 육체를 그저 육체로만 보기 시작하면서 권동철과의 관계를 가볍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어떤 여성도 권동철에게 속아서 권동철의 놀이감이 되는 여성은 없다. 권동철 역시 속임수로 정조를 구걸하지 않는다.

『여성의 적』이라는 신문소설의 세계에서 남성들 뿐만 아니라 여성들 역시 육체적 욕망을 놓고 타협할 줄 알며, 남성들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조율하고 협상한다. 사랑이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 욕망으로만 인식될 때, 남성도 여성도 같이 협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낸다.²⁹⁾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랑이다. 육체를 무시하는 정신적 사랑이 과도한 결벽증의 산물인듯이, 정서적인 소통을 무시한 육체적 관계는 인간을 물화시키는 연애인 것이다.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여성편력에 열을 올리는 맥주회사 사장 권동철은 어떤 여성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지닌 남성이기에, 모든 여성과 연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 역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자질을 무기삼아 여성을 정복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남성을 ‘자본주의적’으로 만날 뿐이다.

『여성의 적』은 이 불균등하기에 균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권동철 같

29) 정비석이 지향하는 정치의식과 현실에 대한 태도, 혹은 젠더인식은 서로 하나로 통하지 않고, 분열적이며 겉돌기까지 한다. 남성 주체를 중심으로 한 가부장권의 확립을 지향하면서도 각 개인의 주체성을 중심으로 성을 파악하고 있기에 어느 순간 가부장권은 의심받거나 부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체적인 여성인물이 등장하거나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이 등장할 때 이런 분열적인 양상이 두드러지며, 정비석 신문소설은 권위적인 서술자와 주체적 인물의 내면적 목소리가 조화롭게 변주되고 있기 때문에, 서사적으로 단절이 심하지만 신문소설로서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여성정복주의자의 삶을 철저히 해부하고 ‘성’과 ‘사랑’과 ‘자본’을 연결시키는 ‘연애 교과서’ 같은 작품이다. 당대의 성풍속이 단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물화된 사회질서의 한 표현임을 간파한다. 물건을 소비하듯이 성을 소비하는 권동철은 당연히 ‘성’이 정서적 친밀성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이루어낸다는³⁰⁾ 비밀을 알지 못한다. 성욕을 인정한 정비석은 성욕이 매개하는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결국 권동철은 자본주의적 관계 속에서 성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이 미로같은 길을 헤매다 부인에게로 돌아가면서 소설은 끝난다.

새로운 사회의 연애는 한쪽이 속아넘어가거나 희생되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아니다. 관계 주체 스스로의 선택과 합의에 기초해서 맺어지고 유지되는 관계이다.³¹⁾ 합의란,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물물교환식 거래는 아니다. 육체적 욕망이 정서적 소통의 매개가 되는 친밀성을 바탕으로하는 관계이며, 배려이다. 서로 인격적으로 배려하며 사랑하는 연인인 백설희와 한승조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동거를 시작하는 연애는 친밀성의 결과이며, 이상적인 현대적 연애로 제시되어 있다. 정비석은 박인수를 그 자체로 비난하지 않는 셈이다.³²⁾ 박인수가 새로운 시대의 연애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선택과 합의에 따른 연애를 추구하고 있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묻고자 한다. 순정한 사랑의 신화를 재탕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는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연애서사이다. 정비석은 이 소설을 통과하면서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서 ‘새로운 연애’와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 사회적인 담론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될 문제라고 파악한 듯하다. 『여성의 적』을 통해 연애와 성의 사회적 맥락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정비석 소설은 이후 소설인 『낭만열차』, 『유혹의 강』, 『비정의 곡』에서 신문소설적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회적인 논쟁점을 좀더 높은 수위로 제안한다.

30)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예로티시즘』, 새물결, 2001 참조

31) 앤서니 기든스, 위의 책 참조

32) 1955년 『여원』은 박인수 사건 모의재판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전달 취소된다. 이때 정비석은 변호사의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정비석은 박인수의 입장을 자본주의적 성문화로 접근하고자 했던 듯하다.

『낭만열차』는 중년의 사랑을 꿈꾸는 원낙영 교수의 이야기이지만, 중년 남성들이 꿈꾸는 로맨스는 전체 이야기를 조율하는 중심 서사가 되지 못한다. 여러 독자들이 언급했듯이 소설은 하나의 이야기로 모아지지 않으므로 사회비판이 다채롭게 전개된다. 즉 하루 분량의 토막 이야기들이 나열되어 구성되는 신문소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사건들이 천태만상으로 드러나 사회의 폭넓은 현안을 조망하게 한다. 원낙영의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하나 하나의 사건들을 매개하는 인물들이다. 부인 김정숙, 부인의 동생이며 납치미망인인 김정옥, 큰아들 동준, 작은아들 동근, 딸 설영, 그리고 큰아들 동근과 연애하는 권채옥, 사위가 될 김창현, 원낙영의 친구이며 권채옥의 아버지인 국회의원 권달수에 이르기까지 이 인물들은 각자의 사회관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사회관계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하여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가족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시대적 사회사를 파노라마적으로 구경하는 듯한 구성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각종 사회문제들이 현안으로 다루어진다. 인물들이 매개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사회 각분야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들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한다. 물론 어떤 사건이나 문제도 해결되거나 정치적 수준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연재 후 많은 독자들이 말했듯이, 문제가 제기되는 방식으로만 사건이 기사적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따라서 사건들을 쫓아다니던 독자는 원낙영이 사랑하는 여인 박난심이 자궁암에 걸려 신파조로 변하는 후반부를 비판한다. 정비석의 여러 소설들의 결말이 작위적으로 급조된 방식으로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남기듯이, 『낭만열차』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에서부터 서술방식에 이르기까지 단절적이어서 독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하다.³³⁾ 그러나 신문연재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일보』에 이어 『동아일보』에 연재된 『슬픈목가』 역시 전체 서사는 농촌계몽운동인 듯 드러나지만, 각각의 작은 이야기들이 도시적 사건들을 조망하면서 사회사적 기록을 방불케한다. 특히 초반 부분은 주인공이 같이 살고있는 삼촌과 그의 가족들을 매개로 부패한 정치 현실과 사회상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에세이를 방불케하는 서술은 신문소설 한 회 연재분이 한

33) 『낭만열차』에서 내리고 - 독자들의 독후감, 앞의 글 참조.

편의 사회비평 에세이인 듯한 구성을 취한다.³⁴⁾

시간은 이제 겨우 아침 열시가 되었을 뿐이건만, 다방은 벌써부터 손님들로 대 혼잡을 이루고 있다. 소란하고 분잡하기가 시장판과 다를 것이 없었다.

(대체 무얼하는 사람들이기에 아침부터 이렇게 다방 출입만 하는 것일까?)

모두가 한결같이 말쑥한 신사들 뿐이었다. 말쑥한 신사들이 담배 연기 속에 끼리끼리 모여 앉아 무엇인가를 수군거리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모든 협잡과 모든 중상모략이 다방을 부대로 하고 꾸며지는 지도 모르리라 싶었다.

손님 중에는 대학생층의 손님들도 더러 끼어 있다. 그들은 차 한잔을 앞에 놓고 눈을 무겁게 지레감은 때, 전축에서 울려나오는 음악을 듣고 있다. 아침부터 다방에 나타나 사뭇 심각한 표정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철학을 토론하고 예술을 비평하는 것으로 문화인 행세를 하는지 모른다. 문화인은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문화인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것처럼 가소로운 일은 없어 보였다.

도대체 문화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문화라는 어휘를 영어로는 「칼추어」라고 부른다. 「칼추어」라는 말에는 「경작(耕作)」하고 「재배(栽培)」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라는 어휘에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문화인은 반드시 정신적인 사업을 경작하고, 정신적인 그 무엇을 재배해야만 할 것이 아니던가? 그것이야말로 문화인의 궁지인 동시에, 문화인의 의무이기도 하다. 문화인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침부터 다방에 눌러 앉아 금붕어 모양으로 차를 마시며 음악만 듣고 있다면 거기서 문화가 생산될 리는 만무하였다. 태만과 권태와 소비는 있어도 생산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었다. 노력이 없는 곳에 생산이 없겠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다방 풍경이야말로 통곡을 해도 시원하지 않을 현상이었다.³⁵⁾

복권판매소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인사들로 대혼잡을 이루고 있다. 정상적인 상업으로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져서, 너도나도 그런 허황한 일에 인생을 걸어보는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불과 이백환이란 돈으로 일생의 행운을 붙잡아 보려는 커다란 도박이 백주 대로상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사행심을 이렇게도 조장시켜서 좋은 것일까?)

강별철은 국가에서 애국복권을 발행한데 대해 많은 회의를 느꼈다. 나라가 제

34) 사회비평적 에세이의 서술방식은 영국 근대소설의 효시로 평가되는 『톰존스』의 서술방식으로서 소설의 근대성을 구성하는 서술특성으로 평가된다. 정비석 소설의 서술방식은 이와 비교해볼 만 하다. 앨런 스윈지우드, 『문학의 사회학』, 한길사, 1984 참조.

35) 정비석, 『슬픈목가』, 춘조사, 1957, 92쪽.

대로 되어 나가자면, 모든 국민에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주어, 거기 대한 정당한 보수로 살아나가게 해야만 옳을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난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사행심만 길러준다는 것은 암만해도 믿음직한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일찍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정책의 하나로 『만주국』에서 다달이 건국복채(건국복채)라는 것을 발행한 일이 있었다. 약간의 상금을 미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까지 털어먹자는 술책이었다. 강병철의 고향은 만주와 가까웠던 관계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노름꾼들이 그 복채를 사기 좋아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등에 당선되어 제법 큰 돈을 잡은 일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아무개가 복채로서 일확천금했다는 소문이 짝 퍼지자, 그 때부터는 복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던 순박한 농민들이 너도 나도 복채를 사기 시작하였다.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낙네들까지 열을 내게 되었다. 한 장을 혼자서 사지 못할 사람은 몇 사람씩 짝무이를 하여 사기도 하였다. 온 동네가 복채열로 숯제 미쳐버렸던 것이다.

그런 한심한 상태가 두세달 계속되는 동안에 농사는 농사대로 나농(懶農)이 되고, 돈은 돈대로 바짝 말라버려서, 육십 여호의 마을이 아주 결단이 나버린 일이 있었다.

강병철은 물론 우리 나라의 『애국복권』이 만주국의 『건국복권』과 똑같은 목적으로 발행되었드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독립국가가 자기국민에게 식민지 정책을 쓸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무리들이 『애국복권』을 사려고 아우성치는 광경을 눈앞에 바라볼 때, 어딘지 모르게 서글픈 감정을 아니 느낄 수가 없었다.³⁶⁾

『슬픈 목가』의 주인공 강병철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풍경을 사회적인 문제로 비평하는 대목이다. 의협심이 넘치는 갓 제대한 청년 강병철은 ‘서울’에서 일어나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삶의 양상을 재판에 나선 재판관의 시선으로 두루 비평한다. 신문기자가 사건을 취재하듯이 탐색하는 시선으로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파헤치며,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고 논평한다. 그리고 감정적인 울분을 토로함으로써 독자의 감정적 동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분석하면서도 필자의 의견에 공감하게 하는 정서적 울림까지 갖추며 사회비평적 에세이의 형식을 취한다. 소설은 인물의 성격을 살리고, 서사를 박진감있게 끌어나가는 서사적 긴장을 추구하는 대신에, 사회비평적 에세이로서 독자들을 사회적 평론가의 자리

36) 『슬픈목가』, 95쪽.

로 유도한다. 이러저러한 사회적 관점들이 소설과 결합하여 다양한 관점의 현실비판을 이끌어낸다.

『낭만열차』와 『슬픈목가』는 전체적으로 중년 남성의 로맨스를 향한 판타지와 농촌 계몽의 꿈을 펼치는 청년의 낭만적 이상이 중심적 서사로 역할하지만, 신문소설의 형식 속에서 이 중심 서사는 일관성있게 관통하고 있지 않다. 이야기는 계속 삽화적 이야기의 개입으로 흐트러지면서 사회문제를 쟁점화한다. 중심적 서사와 상관없이 이어지는 인물들의 생활상은 각종 사회적 문제들을 폭로하는 식으로 펼쳐진다. 부정직하고 부패한 세태를 낱알이 펼쳐보이는 전시장으로 역할한다. 신문소설이라는 대중적인 서사의 특성과 당대 최고의 정치의식을 지닌 신문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의 사회의식 수준을 고려한 신문소설의 대응인 셈이다. 어찌되었건 소설의 이런 내용전개는 여러 욕구를 지닌 신문소설의 독자를 만족시키면서 신문소설의 장르 규범을 만들어간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58년과 59년에 이르면 신문의 사회적 성격이 정점을 향하는 만큼, 정비적 신문소설의 담론적 성격도 더 급진적으로 변화한다.

1958년 『서울신문』에 연재한 『유혹의 강』은 『자유부인』만큼이나 장안의 화제가 된 소설이다. 신문연재 도중 단행본으로 상권이 발간되었으며, 하권이 발간되기 전에 영화가 만들어져 하권에는 삽화 대신에 영화 장면이 실려 있다. 또 후반기 신문연재 면에는 “禁 무단 出版 上映 上演 放送”이라는 문구가 항상 첨가되어 있다. 이런 흥행은 먼저 미망인들의 연애와 성이 선정적인 소재로 활용되었기에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망인이 처한 삶의 문제가 사회적인 제도나 도덕의식과 연관된 예민한 사안이기, 사회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대중적인 관심도 높았다고 할 것이다.

이 소설 역시 작품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서사는 미망인들의 육체를 가부장적인 가족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적으로 위협한 것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미망인을 통제하는 문화정치의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방식은 묘사 대상에 따라 그 주체의 내적 맥락을 최대한으로 드러내는 심리묘사에 집중되어 있어, 심리적 주체의 상황이 사실적이어서 논란이 된다.

작품의 서두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노년에 접어드는 내과 의사 윤만호가 연애의 대상으로 마음에 품게되는 최선애를 진찰하는 장면이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현되어 있다. 이미지로 떠올릴 정도로 상세하게 진찰의 상황이 장면적으로 제시되며, 이 상황에서 육체를 자각하는 최선애의 심리가 자세히 드러난다. 육체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도덕적으로 제도적으로 가장 통제받고 있는 미망인 여성이 스스로 육체를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첫 장면부터 논란거리를 제공한다. 육체가 없는 듯이 정신적인 순결을 다지며 살아야했던 미망인들은 이 소설의 어느 장면에서 한스러운 자신의 속내를 풀어놓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윤만호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도 당대적 일상사로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다. 윤만호는 아내와의 친밀한 관계를 시도하지만 일상적 생활에 젖어있는 아내는 남편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부 상황은 수많은 부부들의 은밀한 고민들이 폭로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재혼도 할 수 없는 납치 미망인들의 딜레마적 상황 등, 남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여성들의 삶을 통제하는 사회적 관습이나 윤리의식의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면이 미망인이 육체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하는 순간에 전면화되어 사회적 쟁점 사안을 만들어낸다.³⁷⁾ 최선애에게 애정을 고백하면서도, 아무 이유도 없이 이십년을 살아온 부인과 이혼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윤만호의 솔직한 뉘etur는 최선애에게도 독자에게도 중년남성들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디테일에 해당한다. 이 사랑고백의 서사는 그 자체로 선인도 악인도 없는 현실세계의 논리와 욕망의 실상을 보여준다. ‘육체’를 소비하도록 시각화하고 상품화한 듯하지만, 육체를 움직이는 의식의 계기를 문제시하기에 대중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찌보면, 소설은 단지 미망인의 육체를 공적인 담론장으로 불러낸 것에 불과하고, 또 결국에는 미망인의 육체를 사회적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통제하는 가정윤리를 확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설이 한토막씩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망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

37) 이입하, 『전쟁 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참조.

의 내밀한 억압적 현실이 공론화되기에 이른다. 사실, 미망인을 육체적 욕망만을 추구하는 물질적 존재로 획일화하는 폭력적 서술이 미망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권력관계에 의해 억압된 사회적인 약자의 실상으로서 미망인이 공론화되기 때문에 대중적 관심과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8명의 미망인들이 모여 일상적 회한을 토로하는 장면은 마치 금기를 넘어서서 여성이 주체가 된 음란적 환타지와도 같다. 독자들은 이들을 욕하면서도 이 카니발적 상황에 내재된 도발적이고 전복적인 상상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다. 여성, 그것도 육체를 지우고 살아야 하는 미망인들의 성을 전면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금기에 도전하는 쾌감과 상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이 한 장면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들어 갑론을박하는 갈등적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것이다. 성이 사회적 억압 체계 전반을 향해 저항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급진적인 담론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유혹의 강』은 연재시 독자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인 작품이다.

이렇듯 여성을 육체적 존재로 자각하게 하는 사회적 효과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이전에 여성을 몸의 주체로 호명하는 것이 된 셈이다. 『유혹의 강』이 상반된 서술관점이 서로 충돌을 일으킬 정도로 혼란스러운 서술로 읽히는 것도 이런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원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⁸⁾ 『유혹의 강』은 서로 충돌하는 관점들이 한 공간에 펼쳐지는 상황으로 논쟁의 장을 방불케한다. 상권에 각 장이 시작될 때마다 실린 여성의 누드화 역시 이런 분열적인 담론충돌적 상황을 더 예각화시키는 비유적 역할을 함으로써 이 텍스트가 다양하게 ‘여성’을 논의할 여지를 제공한다.³⁹⁾ 『유혹의 강』은 이야기의 소재나 서술의 방식, 텍스트를 채우는 시각적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여러 관점들이 충돌하는 서사적 잉여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텍스트이다.

1959년 『경향신문』에 연재된 『비정의 곡』은 한층 세련된 방식으로 사회

38) 김은하, 앞의 글 참조.

39) 『유혹의 강』은 유난히 삽화가 많고 삽화의 비중이 크다.

적인 공론장이 되도록 독자를 서사로 끌어들인다. 이야기는 은행장에서 밀려나 실업자가 된 송원철의 첫 날 아침으로부터 시작해서 송원철이 실업자로 살아가는 고단한 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은행장은 자본주의의 꽃에 해당하는 금융업의 수장이다. 사회의 최고 권력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누리고 있던 최고위층 인물이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되어 세상사를 겪어가는 과정은 당연히 순탄할 리가 없다. 지금껏 누리던 부와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과 늙어가는 육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청춘을 향한 욕망은 이 퇴역한 은행장이 떨쳐버리지 못하는 마지막 염원이다. 이 욕망의 구조는 하루 아침에 최고 권좌에서 밀려난 송원철 같은 인물이 쉽게 세상의 잇속에 속아넘어가는 조건이 되고, 자본주의의 핵심부에서 길들여진 자본가의 생리가 이 과정에서 가장 리얼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한다. 송원철의 전략은 세상이 위험했기 때문이기보다는 송원철의 욕망의 구조가 위기를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위험에 노출된 이 인물의 내면과 욕망의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독자는 욕망을 자극하는 천태만상인 사회상을 구경할 수 있다.

송원철은 주류의 자리에서 마이너리티가 되자 세상이 온통 부정부패와 억울한 일 투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송원철의 시선과 목소리는 소설의 초반부를 생동감있게 만든다. 그렇지만, 이렇게 입장이 바뀌자 바로 직전의 자기를 잊어버리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토로한다. 송원철을 비아냥거리는 서술자는 이런 송원철을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자본가로서, 자기를 중심으로만 세상을 인식하는 무지한 인물로 성격화한다. 이 무지스러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온 자의 순진성일 수 있지만, 자본주의의 속물성과 맹목을 겨냥하는 소설은 이 무지를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송원철과 상류층을 비판한다.

정비석 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은 권위적인 면모를 지니기도 하지만, 성에 솔직한 남성성으로 인해 희화됨으로써 입체성을 부여받는다. 권위적이지만 근엄하지는 않은 다면적인 성격으로 형상화된다. 『자유부인』의 장태연에서부터 『낭만열차』의 원낙영, 『유혹의 강』의 윤만호, 『슬픈목가』에서 농촌에 이상촌을 건설하고자 고생을 자처하는 제대군인 강병철에 이르기까지 남성

주인공들은 모두 사회적인 권위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면모를 지니면서도 여성의 유혹에는 아무런 방어기제도 갖고있지 않은 남성적 본능을 지닌 입체적 인물이다. 그러나 송원철은 권위적이고 합리적인 면모가 제거되고 희화화되기만 하는 인물이다. 송원철이 매개하는 자본가의 세상, 즉 상류층은 모두 악한의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송원철은 악한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송원철의 친구이며 서술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소설가 현몽호가 송원철의 삶을 매개하기 때문이다.

현몽호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건을 갖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다. 송원철의 삶을 안내하고 해석하는 역할만 한다. 실제 직업도 소설가여서 작중 서술자의 기능이 인물화된 것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는다. 현몽호는 송원철을 도와주고 송원철의 상담역할을 한다. 작가의 분신으로도 보이는 현몽호는 송원철에게 은행 대출을 부탁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한 적도 있지만, 마음에 담고있지 않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돈이나 권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장에서 밀려나 퇴락한 실업자에 불과한 송원철을 살뜰히 보살피주고 위로한다. 나아가 서민 생활의 잔재미를 소개하는 역할까지도 한다. 송원철은 현몽호가 안내한 명동의 ‘서민용’ 바에서 만난 허옥심을 사랑하며 현몽호가 이끄는 새로운 세계인 ‘서민’의 세계의 일원이 될 정도다.

그러나 서민이 되기에 송원철은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권력자였다. 자본주의는 자기의 위치와 신분에 맞게 사회적 조건을 이용하고 질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데, 송원철은 가장 기본적인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질서에 대한 감각이 없다. 권력자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타인을 생각한다. 허옥심이 송원철의 돈을 노리고 송원철을 유혹하기 위해 던지는 무수한 사랑의 고백을 그대로 다 믿기에, 허옥심의 마음에 감동하여 사랑하고 행복해한다. 직업도 없고 재혼한 젊은 아내에게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여 고독해하는 퇴역 은행장의 초라한 현실은 허옥심의 계획적인 속임수에 의해 찬란하게 빛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옥심의 사랑은 가짜이기에, 은행장의 권위가 얼마나 허약하고 무력한 것인가가 동시에 드러난다. 심지어 송원철은 친구 현몽호의 어떤 충고도 질투심일 뿐이라고 단

언하며 아랑곳하지 않는다. 또 송원철의 퇴직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의 속임수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전형적인 수법인데, 송원철은 자신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신뢰하며 거금을 빌려준다. 크게 수익이 날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송원철은 자존심을 세워준 것에 대한 답례같은 것이어서 못받아도 아까울 것 없다고 생각할 정도다. 이 역시 현몽호가 충고하지만, 오히려 현몽호를 경계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이렇듯 송원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과 송원철의 어리석은 생각은 현몽호와 독자가 같이 구경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현몽호는 나서서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기까지 한다. 소설의 전체 서사는 현몽호와 독자가 한통속이 되어 퇴역한 은행장이 서민생활에 길들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질서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자본주의 질서에 의해 철저히 패배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본주의를 일깨우는 주제로 수렴되고 있다. 웬만한 담보물을 갖고는 대출을 허락하지 않는 은행장 송원철은 자본주의가 돈의 논리를 따라 냉혹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본가이다. 현몽호는 이런 자본의 논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한다. 반대로 술집 종업원인 허옥심이 술손님을 상대로 손님의 기분을 맞추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 직업의 논리이다. 허옥심은 돈을 따라 술손님을 대하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충실한 직업여성인 셈이다. 송원철을 무역회사의 고문으로 모셔놓고 투자를 중용한 사장의 처세술 역시 고위직을 거쳐 은퇴한 실업자를 고문으로 고용하고 과거 경력을 이용하려는 신흥 영세업자들의 혼한 사업술이다.

송원철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기 행각에 걸려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의 감언이설을 상식처럼 접하고 사는 현몽호는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라 여기며 송원철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송원철은 듣지 않는다. 오히려 현몽호가 자신을 질투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서술자인 현몽호는 독자와 한통속이 되어 송원철이 전략해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를 껌속까지 속속들이 공부하듯이 구경한다. 도시적 생활방식이 자본을 중심으로 나름의 질서를 만들어놓은 상태, 즉 생활을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 자체가 자본을 중심으로 재편된 사회를 일상적으로 접하는 현몽호는 송원

철의 전략을 통해 독자와 함께 ‘한국식’ 자본주의를 공부한 셈이다.

삶을 재현하는 방식이나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이 소설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담론적 주체가 되어 새롭게 형성되는 돈과 욕망의 질서화 과정을 논의하는 서사구조이다. 서사구조가 대화적 형식을 취함으로써 소설이 공론장의 기능을 그 자체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⁴⁰⁾ 1959년 『경향신문』이 폐간될 당시에 실린 『비정의 곡』은 신문의 정치의식을 염두에 두고 성과 돈을 따라 움직이는 ‘사회’를 논란거리로 재현하고자 하는 정비석 신문소설의 의도가 가장 잘 실현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무대공연과 신문소설: 신문소설의 시공간성과 정체성의 구조

『자유부인』에서 『비정의 곡』에 이르는 정비석 신문소설은 1954년부터 1959년에 걸친 한국사회의 도시생활과 문화를 생활세계의 내밀한 측면에서 펼쳐보여준다.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현안과 사회구성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의 근거들이 충돌하고 경합하는 담론장이다. 그런데 이 소설적 성과는 신문소설을 무대공연처럼 생각하며 현장성을 중시했던 정비석의 신문소설론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독자가 신문을 읽는 그 상황 속에서 만이 의미가 실현된다는 상황적 인식은 소설의 서사만큼이나 결정적이다. 즉 1950년대 신문의 사회적 성격은 정비석의 신문소설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다.

1950년대는 국가의 제도적 기능은 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채, 사람들은 전쟁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따라 무슨 일든 시도하던

40) 서사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은, 서사가 분열적으로 다성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공론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비석 소설을 둘러싸고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소설의 서사구조가 분열적인 양상으로 다원적 담론을 내포하는 다성적 구조를 지닌다는 것이다. 서사 구조를 세밀히 분석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소설을 놓고 벌어지는 다양한 담론화 양상도 함께 고려되어야 공론장으로서의 의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과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시기였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사회를 재편할 중요한 이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육망’은 새로운 사회의 현실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관이 팽배하였다.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의 정책조차 제대로 기틀을 형성하고 있지 않았기에 ‘사바사바’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무원칙적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채로 자본주의적 질서가 정착되고 있었다. 새로운 사회의 이념으로 떠돌았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상상할 수밖에 없도록 현실의 무질서와 무원칙은 심각한 상태였다.⁴¹⁾ 신문의 사회면은 온통 새로운 가치관에 열을 올리는 문화풍경과 그로 인해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세’같은 예언이 난무하며 화려한 인간사의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⁴²⁾ 정부(국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던 전후 한국사회의 국민정서는 반정부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사회적인 의식을 형성시켰다. 정부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양상이 두드러져 ‘야당지’라는 분류도 어색하지 않았던 1950년대 신문은 이같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기사거리로 삼으며, 여론을 대변하는 담론적 공동체의 역할을 자임한다.⁴³⁾

『동아일보』가 야당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명성을 얻게된 것도 이 때이며, 『경향신문』은 정부에 맞서다가 결국 1959년에 폐간된다. 또 1954년 창간된 『한국일보』는 창간사설을 통해 “신문은 누구도 이용할 수 없”는 공공적인 것이고, 『한국일보』는 “춘추필법의 정신, 정정당당한 보도, 불편부당

41) 자유와 민주주의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전유되는 방식과 그 담론을 둘러싼 풍속의 문제는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그래그마티즘』, 『아프레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이봉범,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56집, 2010 참조.

42) 정비석은 『낭만열차』를 연재하기 시작할 때, 작가의 말을 통해 아침마다 신문을 보면 살풍경한 인간생활을 파노라마처럼 보게된다면서 현대사회를 꿈을 잃어버린 사회로 규정한 바 있다. 『한국일보』 1956.4.21 참조.

43) 최장집은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성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사회, 즉 정당체제와 같은 정치의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분석한다. 즉 정권을 견제하고 대항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는 정치적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나마 1950년대에는 언론이 야당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 민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개적인 담론장이 마련되어 민주화의 토대가 형성된다. 유신시대를 거치면서 언론은 지배권력으로 흡수되고, 공론장의 구조는 사라진다. 1950년대 언론, 특히 신문의 사회적 역할은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평가될 점이며, 신문소설의 의미도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101,112쪽 참조.

의 자세”를 품고 신문을 만들것이라고 선언하면서 1950년대 신문의 사회적 성격을 정리한 바 있다.⁴⁴⁾

이렇듯 신문이 공공(사회적)의 이익에 복무하는 담론적 공동체를 형성할 만큼 사회적 대응과 여론조성 능력을 고조시키고 있을 때, 정비석은 신문에 연재소설을 썼던 작가들 중 제일 많은 소설을 썼으며, 제일 인기가 있던 작가였다.⁴⁵⁾ 정비석의 신문소설 창작과 인기는 수많은 화제를 낳았던 『자유부인』으로만 논의되고 있지만, 종이가 부족해서 신문소설이 여간해서는 단행본으로 출간되지 않았던 상황에서⁴⁶⁾ 거의 모든 신문연재소설이 곧바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만 보더라도 정비석 신문소설의 인기는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⁴⁷⁾

정비석의 신문소설은 신문이 여론을 대표하는 담론 공동체로서 기사를 구성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서 당대적 사건을 서사화한다. 당대의 새로운 가치관이 작용하는 삶의 방식을 ‘문화’와 ‘의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신문과 더불어 인기있는 읽을거리가 된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신문소설이나 대중지의 소설이 택하는 통속성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할 정도로 ‘짚레킷 룩’의 통속소설의 문법을 벗어나있다.⁴⁸⁾ 돈과 성을 향한 욕망을 속물적인 방식 그

44) 서광운, 앞의 책, 322쪽에서 재인용.

45)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 문화』 참조.

46) 최미진, 앞의 글 참조.

47) 무슨 일이든 이윤을 남길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시기였기에, 대중적으로 인기를 보증받고 있던 정비석의 소설은 신문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큼 상업적 효과가 큰 소설이었다. 『자유부인』의 하권 부분이 연재될 때 상권부터 출간되었으며, 『유혹의 강』도 연재가 끝나기도 전에 상권이 출간되고, 영화 제작에 들어가 소설 하권에는 영화장면이 삽화를 대신해서 실릴 정도였다.

48) 1930년대는 근대문학사에서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이 처음으로 문제시되었던 때이다. 순문학과 본격문학의 대립구도가 생겨난 것도 이 때이며, 이태준 같은 작가는 단편소설과 신문연재소설이 다른 문학적 원리를 지닌다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상업성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통속소설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김말봉의 소설은 영웅적 인물의 숭고한 사랑을 중심으로 통속성 논의가 가능하다. 이것은 대중적 감성을 자극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다. 그러나 소설이 잘팔린다는 것만으로 통속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예외가 많다. 단적으로 김말봉의 통속성과 같이 논의되는 박계주의 『순애보』는 신문연재소설이 아니라, 현상공모 당선작이다. 1930년대 신문연재소설의 통속성 문제는 서영채의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 - 김말봉의 『짚레킷 룩』 읽기』(『소설의 운명』, 문학동

대로 폭로하고 인정하는 연애 서사, 돈의 논리에 충실한 자본주의적 질서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부와 사회를 비판하고 회화화시키는 해석적 서술 등은 정비석 신문소설의 서사적 장치들이다. 통속소설이 추구하는 삼각관계, 영웅이 되는 고결한 인물의 송고미, 선악의 대비 속에서 생겨나는 질투와 시기, 영웅성을 완성시키는 우연성 등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권위적인 남성 주인공에 해당하는 장태연, 원낙영, 윤만호를 비롯하여 가장 낭만적인 이상을 실천하는 인물 강병철조차 여성의 육체 앞에서는 무력하게 자기를 내맡기는 욕망의 존재로 그려진다.⁴⁹⁾ 게다가 신문 사회면으로 착각할 정도로 사건이기사처럼 나열식으로 제시되고는 마무리없이 지나가는 서술방식을 취한다. 또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이 사회비평 에세이처럼 논평하듯이 서술된다. 이런 서술방식은 인물의 송고한 정신에 동화되도록 감정이입시키는 통속소설의 문법과 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정비석의 소설이 모두 이런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는 없다. 대중지나 여성지 같은 잡지에 연재했던 소설은 장편소설이라 하더라도 통속소설적인 면모를 두루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애정서사 중심의 삼각관계, 선악 인물형의 대비, 남성 주인공의 송고한 면모 등 통속소설의 일반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⁵⁰⁾

유독 신문소설이 정비석 소설의 어떤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신문소설에 대한 정비석의 남다른 인식 때문에 신문소설을 특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新聞이나 大同小異한데, 그런대로 讀者에게 그날 그날 자기 新聞에 대한 色다른 興味를 주자면 결국은 小說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小說 이외에도 社會 政治評論 時事評論 文化評論 經濟評論 등 여러 가지 獨占記事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記事를 興味를 가지고 읽어줄 讀者의 數조차 있는 것을 생각할 때 長篇小說이야말로 어느 記事도 比較가 안될 만치 絕對多數의

네, 1995)를 참조할 것.

49) 이광수나 박계주의 남성인물과 대비되는 소설적 특성이다.

50) 『산유화』, 『야래향』 등은 신문소설을 많이 쓰던 시기에 잡지에 연재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讀者를 借地하고 있다는 것은 새삼스러히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男女老幼나 階級의 上下를 莫論하고 小說을 누구나 興味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記事이므로, 모든 記事 中에서도 連載小說은 全體 讀者들의 廣場이요, 全體 讀者들의 唯一한 最大公約數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新聞小說은 企業面에서 상당히 重要시되는 만큼 企業者 측에서 新聞小說에 요구하는 條件이 自然히 成立되게 되는데, 新聞小說의 特殊한 性格의 一面은 그런데서 起因하게 된다. 즉, 還元하면 新聞小說은 新聞이라는 特殊紙面에 連載된다는 事實과, 全體 讀者가 公同적인 興味를 가지고 읽게 해야 한다는 事實과, 新聞企業主의 要求條件에도 어느 정도로는 應해야 한다는 事實 등등이 있으므로, 그 모든 것이 한데 凝結되어 하나의 特殊한 文學 ‘장르’를 이룬 것이 新聞小說의 性格이라고 하겠다.⁵¹⁾

新聞에 連載하는 小說은 『新聞制約』을 아니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新聞制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 點을 究明하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新聞自體의 特殊性부터 밝혀야 할 것 같다. 新聞이란 말할 것도 없이 經濟, 社會, 文化 전반에 걸쳐 國內外에서 그날그날 일어나는 새 消息을 最短時間에 讀者에게 알려주는 것을 絕對인 使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新聞記事는 가장 現實的이요 尖端의 인 性格을 띠게 되는데, 그러한 紙面에 連載하는 小說인 만큼 新聞小說歷史小說은 別問題이지만 主題를 擇하는데 있어서도 現實的이요 尖端의 일 必要가 있다. 新聞記事는 尖端의 現實的인데 小說 內容만은 舊態依然한 內容을 取扱하면 여간 能한 숨씨로 엮어나가기 前에는 讀者의 感情이나 感覺과 동떨어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換言하면 꼭 같은 숨씨로 엮어나가는 경우에는 新聞과 더불어 尖端的인 것이 훨씬 效果의 이라는 말이다. / 作家가 新聞 속에서 어떤 理想을 논하려는 것은 作家의 自由다. 그러나 그 理想이라는 것도 現實을 土臺로 하고 現實을 銳利하게 反映시켜가면서 그 現實 속에서 理想을 說服해나가지 않으면 新聞讀者에게는 新鮮感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新聞小說은 社會의 銳利한 反射鏡일 필요도 있다.⁵²⁾

정비석이 신문소설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1946년에 출간한 『소설작법』(신대한도서주식회사)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이 실려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통속소설고」라는 제목 하에 쓰여진 글이며, 내용도 통속소설이 주로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한 통속소설 일반론이다. 1950년

51) 정비석, 『신문소설론 - 작법과 감상』, 서라벌예술대학 출판국 편, 『소설연구』, 한국 교육문화원, 1956, 97쪽.

52) 위의 책, 98쪽.

대 정비석이 주로 썼던 신문소설이 통속소설과는 다른 원리를 지닌다는 판단 하에 새롭게 신문소설론으로 바뀌서 내용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주목할 부분은 신문소설을 “전체독자들의 광장이요, 전체 독자들의 유일한 최대 공약수”라고 정의하는 부분이며, 첨단적 현실을 다루는 신문기사에 맞추어서 신문소설도 첨단적 현실을 전달하는 신선헬을 지녀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예리한 반사경(反射鏡)”이어야 한다는 신문소설에 관한 정의다. 그리고 이런 정의를 바탕으로 신문소설은 “특수한 문학 장르”로 구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점이다.

해방과 더불어 각종 잡지와 신문에 수많은 소설을 썼던 정비석은 신문소설을 작가 혼자만의 창작이 아니요, 독자의 호흡을 염두에 두면서 같이 만 들어가는 특수한 문학 장르로 인식하고 있으며, 독자와 같이 구성하는 최첨단 현실을 논하는 광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장에 참여하는 모든 독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은 인물이 등장해야 하며, 현실적 사건들을 두루 다루면서 신선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신문소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신문의 성격은 신문소설의 내용을 결정하는 일차적 전제 조건인 셈이다. 정비석은 신문소설을 독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장’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현대적인 생활이 논의되는 가장 현대적인 사실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독자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독자의 관심을 따라가다보면 통속성에 빠질 수도 있지만, 통속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하면서 통속소설과 신문소설을 구별하기도 한다.⁵³⁾

정비석의 신문소설에 관한 생각은 정비석 신문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서술하는 듯이 신문소설과 맞아떨어진다. 신문소설의 장르적 원칙에 충실했던 정비석의 신문소설들은 최첨단의 현대적인 생활사실들을 다룸으로써 “전체 독자들의 광장”의 역할도, “사회적 반사경”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53) 1950년대 신문소설 작가 중에서 정비석과 함께 김내성도 신문소설의 대중성과 통속성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비석이 신문소설은 독자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야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처럼, 김내성 역시 이보만 전진하여도 대중들은 따라오지 못하니까 일보만 전진하여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내성, 『대중문학과 순수문학』, 『경향신문』, 1948.11.9 참조

정비석의 신문소설에 관한 생각은 정비석 신문소설의 특징을 그대로 서술하는 듯이 신문소설과 맞아떨어진다. 신문소설의 장르적 원칙에 충실했던 정비석의 신문소설들은 최첨단의 현대적인 생활사실들을 다룸으로써 “전체 독자들의 광장”의 역할도, “사회적 반사경”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역할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 국한될 특성이지, 정비석 소설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신문소설론은 신문의 성격에 따라 신문소설이 제한된다는 중요한 전제 조건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장르적 속성을 확인해준다. 즉 신문소설은 정비석의 것이지만, 정비석이 신문소설의 인식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신문과 정비석이 만난 어떤 지점의 시공간적 구조 속에서만 가능한 신문소설의 의미이다. 결국 신문이 1950년대 정치권력과 사회를 비판하는 야당지의 성격을 유지하지 못할 때 정비석 신문소설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정비석의 것이지만 정비석의 것이 아니기도 한 1950년대 신문소설의 성격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1963년부터 1964년에 걸쳐 『동아일보』에 연재된 『육망해협』은 『비정의 곡』과 비슷한 서사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1959년 정비석 소설이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 주체들이 충돌하는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노년의 성을 다룸으로써 노년과 성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관념들이 충돌하게 한다거나 친밀성을 성과 결합함으로써 노부부의 쓸쓸한 노년의 삶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현상을 부각시킬 뿐, 어디에서도 사회적 현안과 만나지 않는다.

정비석은 신문의 사회적 위상과 담론에 맞추어서 자신을 변화시켜간 공론장 창출자로서의 소설가였지만, ‘신문’이라는 매체에 국한된 성격이었다. 신문은 무대였고, 독자와 함께 무대공연을 만들어가는 ‘공연상황’ 자체가 신문소설이었던 것이다.⁵⁴⁾ 따라서 무대를 구성하는 1950년대의 신문의 성격에 걸맞는 담론공간이 없고, 이에 부응해서 상상할 수 있는 독자가 없는 상황에서 1950년대 신문소설과 같은 형식도 내용도 구성될 수 없었던 것이다.

54) 정비석, 「신문소설 공죄론 - 요는 그 무대조건을 선용할 것」, 『동아일보』, 1954.11.28 참조

독자와 함께 무대공연을 만드는 것이 바로 신문소설이라는 신문소설에 대한 생각이 정비석 자신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신문소설을 분열적이고 단절적인 방식으로 최첨단의 공론장으로 구성해낼 수 있는 힘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민주어족』의 민주주의 인식이나 모든 소설들이 가부장적 가정 윤리로 회귀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⁵⁵⁾ 정비석이 다원적 주체를 구성하는 담론을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성을 담론화함으로써 정신과 육체의 주체화를 통해 사랑이 완성된다는 인식을 유포하는 것이나, 미망인을 육체는 가부장적 관계에 의문을 제기한다든가 미망인을 육체적 존재로 재현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미망인의 삶을 공적 담론장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일이었을 것이다. 소매치기단의 비참한 생활을 통해 고리를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가난의 실상을 공공연하게 다루는 것 역시 독자의 주목을 받았을 것이다. 젠더, 계급, 지역성 등 차별의 구조 속에서 타자화된 자들의 억울한 심사가 제도적, 사회문화적, 정치적 맥락에서 탐색되는 방식으로 최첨단의 현실을 재현한다. 특히 돈과 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인정하고, 최대한 인간적 이상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화시키고자 하는 소설의 기획은 자본주의적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를 총체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생산과 이성으로만 근대를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욕망의 자본주의적 속성을 근대로 사유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소비와 욕망을 터부시하고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론화하는 것은 여성과 하층계급을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이는 정비석 소설이 근대적 주체 구성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근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이 민주주의와 연관된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민주적인 가부장을 통해 일시분란하게 생산적 활동을 수행

55) 유부녀의 성을 다루지 않는다. 자유부인만이 예외적이었고, 그래서 오선영은 일탈, 불륜으로서 심판받고 처벌받았다. 대부분 소설에서 여성은 처녀와 미망인의 성만을 다룬다.

하는 공동체가 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민주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 어족』의 민주주의 인식이 정비석을 과시즘적 기획의 계승자로 평가하게 하지만,⁵⁶⁾ 소비와 욕망을 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정비석은 정비석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정비석의 또 다른 면은 아닐까? 무수한 균열을 내장한 채 단절적인 틈새를 보이면서 흔들리는 텍스트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⁵⁷⁾ 근대를 사유하는 정비석의 분열적 정체성과 연관되는 소설의 다성적 면모인 듯하다. 사회의 구성원을 모두 근대적 주체로 재현하는 서술관점, 누구나 욕망과 성의 주체라는 방식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인간관은 생활세계의 민주화를 선취하는 것과 통할 수 있다. 이 주체성 구성의 서술방식이 ‘신문’이라는 담론장에 모여든 독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키며 주목하게 하는 공론화의 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라는 사회가 논란의 대상이 되거나, 혼란의 시기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관념이나 문화와 새로이 형성되는 근대성의 세목들이 실체를 갖고서 충돌하고 갈등하는 ‘공론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비석의 신문소설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은 이 충돌과 갈등의 폭이 넓었기 때문이다. 충돌과 갈등의 다양한 담론들은 다양한 주체를 의미한다. 다양한 주체가 자기를 구성할 수 있는 담론공간의 창출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다. 정비석이 소설에서 민주주의를 만병통치약인 듯이 수사적으로 남발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비아냥거리는 문체 속에서 언급되든, 계몽적인 언술로 언급이 되든 ‘민주주의’는 기존의 사회를 유지시키는 원리를 파괴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을 지닌 가치로 소통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비석이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가치는 실제로 모순적으로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소설적 장치일 뿐이며, 정비석 소설의 민주주의를 놓고 당대의 민주주의 인식을 가늠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든 다양한 담론 주체들이 갈등하고 충돌하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정비석 스스로도 단일하지 않기에 소설의 카니발적 양

56) 정종현,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 권보드레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참조.

57) 강진호, 최미진, 김은하의 텍스트 분석은 이 분열적인 면을 주목하고 있지만, 전체 서사적 주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리고 다양한 담론적 주체를 독자로서 소설 공간에 끌어들이는다. 『자유부인』부터 1950년대에 발표된 중앙일간지의 소설은 모두 이런 ‘담론화’ 양상을 보여주며, 정비석의 신문소설과 정비석이라는 사회인의 정치의식은 바로 『비정의 곡』이 연재되는 1959년경에 임계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이것은 1950년대 신문소설과 정비석이 만나서 형성한 한 순간의 정체성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950년대 정비석은 신문소설에서 생산과 발전 뿐만 아니라, 소비와 욕망을 사회적인 것으로 공문화함으로써 근대의 지평을 확장했다. 그러나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소비와 성을 통제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동화되어 간다. 정비석의 소설은 분열적이지도 다원적이지도 않게 되며, 가부장적 관점이 성과 소비를 통제하는 지배담론의 구조 속에서 생산과 발전의 논리를 통제성을 재전유한다.⁵⁸⁾ 성적 주체로서 여성이 사라지면서 정비석 소설의 다원적 관점은 억압되고 사라져간다. 그저 소수의 의견이었기에 없어져버리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된 셈이다. 『민주어족』의 길로만 가는 정비석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최첨단의 생활세계를 다룸으로써 ‘광장’의 역할을 하는 신문소설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것은 반국가, 반정부, 반사회의 담론을 생산했던 1950년대 신문이라는 무대와 독자들이 없이는 불가능한 정비석이었기 때문이다.

58) 정비석은 196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치기까지 지속적으로 신문에 소설을 연재한다. 주로 당대물이었으나, 1963년부터 『학원』에 『소년 삼국지』를 연재한 이후로는 역사물을 연재한다. 우연인지 1970년대부터 금융자본의 이익에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는 중년 남성 독자들이 즐겨보는 ‘경제신문’에 연재한다. 당연히 역사물이라 하더라도 매체의 성격, 즉 독자의 성격에 맞추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남성들의 독서물인 전쟁서사를 근간으로 하는 삼국지와 손자병법은 남성들의 처세술과 생존전략, 성공담을 위해 재편될 수밖에 없다. 신문 사회면 기사를 서사로 재현하는 1950년대 신문소설이 세태비판적이고 정치비판적인 담론장을 형성하게 하는 조건이었다면, 1970-80년대 성장제일주의 사회에서 경제신문의 성격은 성공을 위한 처세에 집중하는 남성중심적 영웅서사를 가능케한 배경적 조건이 된다. 『명기열전』이나 『손자병법』은 더 이상 다양한 주체가 자기를 몰입시키는 서사적 담론장으로 역할하지 않는다. 가부장적 발전주의의 한 경로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경제제일주의, 생산주의를 중심으로 한 남성적 처세주의는 매체의 성격과 관련해서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정비석은 1950년대에 가장 호화롭게 작가 생활을 했다. 스스로 말하듯이 “적어도 대한천지에서는 글자나 배운 사람치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만치 유명해”⁵⁹⁾졌던 때가 『자유부인』을 쓰고 신문소설의 작가로 활동하던 때이다.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신문소설을 통해 사회적인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대중적 담론장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신문소설론’을 따로 쓸 정도로 신문이라는 매체에 연재되는 형식의 소설을 특화시켜 그에 걸맞는 소설을 고민하고 창작했던 정비석은, 그 고민에 값하는 신문독자의 호응 속에서 화려하게 신문소설의 시대를 주도했던 것이다.

중앙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자유부인』에서부터 반정부적 대응으로 폐간될 시기의 『경향신문』에 연재하다가 중단된 『비정의 곡』에 이르기까지 정비석의 신문소설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사회비판적 성격에 맞추어서 세태비판적인 담론을 구성한다. 전작 장편소설들이 의도하는 전체적인 서사적 흐름을 고려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세태반영과 비판의 서사를 단막극의 형식으로 이어가는 구성이 압도적이다. 이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양한 주제가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매개하면서 사회 곳곳을 비추는 방식으로 다양한 담론주체를 생산하고 사회비판적 발언을 남발한다.

정비석은 신문소설이 신문이라는 무대와 독자라는 관객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루어가는 시공간적 구조의 ‘무대공연’과 같다고 인식했다. 다양한 인물의 상황 속에서 인물을 주체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첨단적인 현실을 신문 사회면과 보조를 맞추어 미시사적 사실로서 재현해야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렇듯 당대적인 첨단의 현실을 인물의 내적 상황으로 그려내고 있기에, 신문소설은 다양한 삶의 관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날 것 그대로 폭로되는 갈등의 장이 된다. 돈과 성을 따라 움직이는 욕망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재편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한 편의 파노라마나 스펙터클이 되어 새로운 자본주의적 삶을 동경하는 독자들을 현혹시키고 빠져들게 하면서 논란거리를 만들어낸다. 신문의 독자들은 사회면 기사를 보며 세태를 파악하고, 정비석

59) 각주 2)를 참고

신문소설을 보며 그 세태를 양산하는 욕망의 기원을 탐색하고 논의한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합하고 있는 다양한 독자(대중)들은 신문소설을 매개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것이다. 작가에게 항의하는 항의문이나 독자투고, 독자의 격려문, 비판기사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공론장을 문서의 형식으로 구체화하기도 하고, 여러 방식의 풍문으로 도시의 대중문화로 집약시키기도 한다. 삶의 다양한 면면들을 그 속에서 생활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다원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기엔 다원적 관점이 충돌하는 논의의 ‘장’으로 역할한다.

물론 이 논란은 정비석 신문소설이 제기하는 사회비판적이고 반정부적이며 풍속사적인 사건들과 세태에 관한 것이다. 신문소설은 그 내용만큼이나 공개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구조로서 담론장의 역할을 한다. 텍스트의 서사적 의미를 넘어서서 당대적 문화사의 맥락에서 재구되는 정비석 신문소설의 의미실현 구조는 바로 이 담론적 충돌 양상을 통해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공론장’은 이와 관련된 개념이다.

그러나 신문소설의 공론장의 구조는 실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저 무정형의 추론으로 상상되는 독자들의 존재형식이다. 그러나 떠돌아다니는 독자(대중)는 이 공론장의 담론효과를 통해 실체화되기도 한다. 정비석의 소설이 공공연한 논란을 거쳐 공론장으로 역할한다면, 이 논의의 장 자체가 독자대중의 실체일 수 있는 것이다. 대중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고,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⁶⁰⁾ 정비석 소설은 공론장적 구조로서 대중을 실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관점의 사회비판적 주체를 구성하는 논의 구조를 통해 ‘민주주의’적 소통의 사회적 형식을 시도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비석은 스스로 여러 지면에서 ‘민주주의론’을 언급한 바 있지만, 소설에서 언급된 민주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를 오해하는 흔적으로 평가될 만하다. 정비석 소설을 놓고 타진하는 민주주의는 정비석 스스로 언급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소설의 구조, 즉 소설의 다원적 담론구조로 독자들이 모여들게 하는 공론장적 성격을 민주주의적 소통의 사회적 형식으로 평

60) 김연중, 『대중문화: 대중의 문화』,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1996, 185-186쪽 참조

가할 수 있다.

이런 정비석 신문소설의 사회사적 의미는 1950년대 신문 매체의 사회사적 구조 속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 1950년대 신문이라는 무대와 독자라는 조건이 어우러질 때만이 가능한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 무대가 없이는 정비석 신문소설이 이런 서사를 구성하지 못한다. 결국 1950년대 신문의 사회적 성격이 변하자 정비석 신문소설은 더 이상 1950년대 신문소설과 같은 ‘공론장’적 의미를 지니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정비석도 1950년대 신문소설이 구현한 사회사적 성과를 기억하지 못한다. 게다가 1960년 4.19로 표출된 대중의 꿈과 욕망의 다차원적 의미가 5.16을 통해 경제제일주의를 중심으로 재편되어가면서,⁶¹⁾ 정비석 소설의 공론장적 구조 속에서부터 표출된 대중의 일상과 욕망은 경제주의에 장악되어간다. 『소설 삼국지』를 계기로 경제주의적 성공신화와 처세술에 경도되기 시작한 정비석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활발하게 개진했던 계급, 젠더, 지역을 망라한 근대적 주체를 재현하지 못한다. 신문소설을 공론장이 되게할 정도로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자본주의적 삶의 문제들은 단일한 주체를 중심으로 획일화되고, 다양한 주체의 담론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억압되고, 사라져간다. 정비석 신문소설의 사회적 의미를 1950년대로 제한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비석 신문소설은 1950년대 사회와 긴밀히 연관된 담론적 특성을 지닌다. 1950년대가 다양한 담론을 통해 다원적 주체구성의 기획이 가능했다면, 정비석 신문소설의 담론장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문화적 활기와 정치를 비판하는 ‘사회’의 형성은 신문소설의 공론장적 구조에서부터 논의될 수 있을 것이며, 정비석 소설의 문학사적 의미는 1950년대를 통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61) 이상록,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호, 2011.4 154-155 참조.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제신보』, 『신태양』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식회사, 1946.
서라벌예술대학출판국 편, 『소설연구』, 한국교육문화원, 1956.
정비석, 『도회의 정열』, 평범사, 1947(『신인』, 1947 연재).
정비석, 『여성전선』, 한국출판사, 1952(『영남일보』, 1951 연재).
정비석, 『자유부인』, 정음사, 1954(『서울신문』 1954 연재).
정비석, 『민주어족』, 정음사, 1955(『한국일보』 1955 연재).
정비석, 『여성의 적』, 정음사, 1955(『국제신보』 1955 연재).
정비석, 『낭만열차』, 동진문화사, 1958(『한국일보』 1956 연재).
정비석, 『슬픈목가』, 춘조사, 1957(『동아일보』 1957 연재).
정비석, 『유혹의 강』, 신흥출판사, 1958(『서울신문』 1958 연재).
정비석, 『비정의 곡』, 삼중당, 1960(『경향신문』 1959 연재)

2. 논문과 단행본

- 강상희, 『계몽과 해방의 미시사』,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하반기, 177-196쪽.
강진호, 『전후 세태소설의 존재방식』,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프리카리아』, 소명출판사, 2004, 36-55쪽.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그래그마티즘』,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61-104쪽.
김복순, 『반공주의의 젠더 전유양상과 ‘젠더화된 읽기’: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문학연구』 5권1호, 2004, 27-54쪽.
김은하, 『전후 국가근대화과 위험한 미망인의 문화정치학 -정비석의 『유혹의 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9집, 2010.12, 211-229쪽.
김현주, 『식민지에서 ‘사회’와 ‘사회적’ 공공성의 궤적』, 『한국문학연구』 38집, 2010 상반기, 221-262쪽.
서영채, 『19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 - 김말봉의 『짚레꽃』 읽기』, 『소설의 운명』, 문학동네, 1995, 173-197쪽.
여건중, 『공공영역의 수사학』, 『안과 밖』 2호, 1997, 8-40쪽.
윤상길, 『‘식민지 공공영역’으로서의 1910년대 <매일신보>』, 『한국언론학보』 55권2호, 2011.4, 56-77쪽.
이봉범, 『1950년대 신문저널리즘과 문학』, 『반교어문연구』 29집, 2010, 261-305쪽.

- _____, 『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 『한국어문학연구』 56집, 2011.2, 335-387쪽.
- 이상록, 『전쟁의 폐허 위에 다시 세워진 ‘정조관념’』, 『20세기 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2001, 135-144쪽.
- _____, 『경제제일주의의 사회적 구성과 ‘생산적 주체’ 만들기』, 『역사문제연구』 25호, 2011.4, 115-158쪽.
- 이선미, 『미국적 가치의 대중적 수용과 통제의 메카니즘』, 『민족문화연구』 54호, 2011.6, 45-87쪽.
- 임현영,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224-230쪽.
- 정종현, 『자유와 민주, 식민지 윤리감각의 재맥락화』, 『아프레걸 사상계를 읽다』, 동국대출판부, 2009, 105-149쪽.
- 최미진, 『한국전쟁기 정비석의 『여성전선』 연구 -소설창작방법론을 중심으로』, 『현대 문학이론연구』 32집, 2007.12, 305-330쪽.
-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1954.3.1
- 박명진 외, 『문화, 일상, 대중』, 한나래, 1996.
- 서광윤,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 손석춘, 『한국 공론장의 구조변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손세일 편, 『한국전쟁사2-문학:어학편』, 청람문화사, 1976.
- 이입하, 『전쟁 미망인, 한국현대사의 침묵을 깨다』, 책과함께, 2010.
-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2.
- 요시미 순야, 『미디어 문화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 리타펠스키, 『근대성의 젠더』, 자음과모음, 2010.
- 앤서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새물결, 2001.
- 앨런 스윈지우드, 『문학의 사회학』, 한길사, 1984.
-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나남, 2001.

Abstract

Public sphere and 'Minority Report'

-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and Cheong, Bi-seok -

Lee, Sun-Mi (Dongguk University)

Cheong, Bi-seok had been famous for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In spite of his real fame, he was appraised by [seonwhangdang](short stort)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herefore, Cheong, Bi-seok literature could't be researched generally.

Cheong, Bi-seok literature reached its peak in the 1950's, through the serial stories in the newspapers. It seems that the novels delt with the sexuality. As a result, the novels reflected the realities of society through the sexual culture. So many reders had the various opinion gathered in the newspapers. Consequently, the serial stories in the newspapers became the public sphere. Cheong, Bi-seok novel represented the social spirit and culture in the contemporary. And then, the social role of these novels could be evaluated as the democratic aspect.

But it could'nt be said that these attributes had come from Cheong, Bi-seok. The newspapers in the 1950's were the antigovernment feature, and the readers gathered to investigate these news and opinions. Cheong, Bi-seok novels were sensitive at these aspect. Cheong, Bi-seok novels in the 1950's were result from the features of newspapers, the readers, and Jeong Bi-seok.

As The features of newspapers in the 1960's changed, Cheong, Bi-seok novels in the newspaper didn't keep the public sphere. Consequently, the plural subject disappeared as the 'minority report'.

(Keywords : a serial story in a newspaper, Cheong, Bi-seok, publish sphere, plural subject, democracy, reader, minority report, sexuality)

학술대회 발표일 : 2011년 10월 22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1년 10월 30일 정식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계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